누가 '세대카드'를 쥐고 사회를 흔드는가?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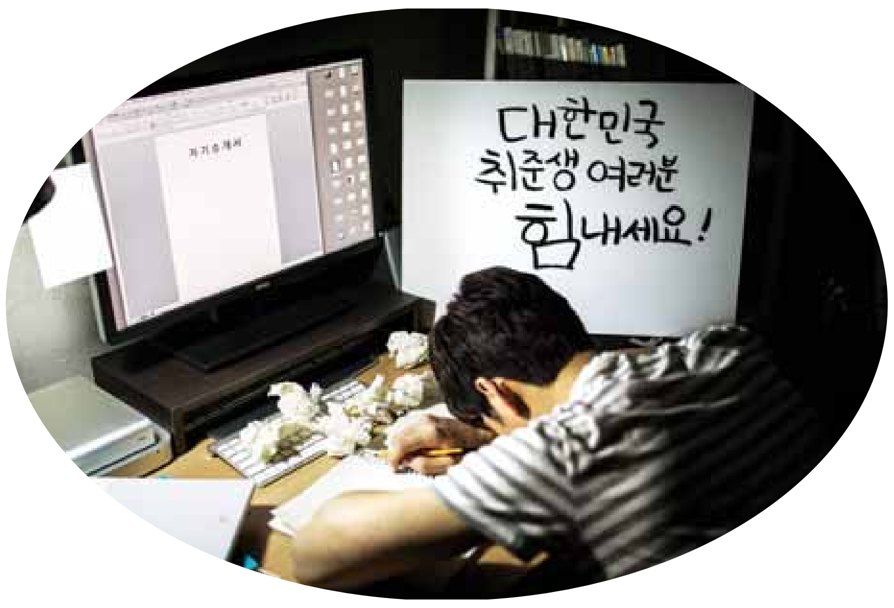
세대 게임

전상진 지음

자본·기업·계급 대립은 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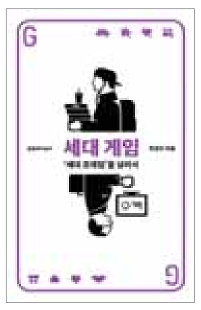
청년 대 기성세대 대립 구도화

한국 사회 만연한 세대프레임 걷어내기



한국사회는 이태백·삼팔선·사오정·오륙도 등 결코 세대로 치환하여 설명할 수 없는 불평등의 문제를 세대문제로 프레임화 하고 있다. 저자는 세대라는 프레임 이면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까운 미래에 계급 전쟁은 빈자와 부자의 대결이 아니라 젊은이와 노인의 싸움으로 다시금 정의될 것이다."



MIT 경제학 교수 레스터 서로가 진난 1996년 '뉴욕 타임스 매거진' 칼럼에서 말한 내용이다. 최근 한국의 사정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년 '사회통합 실태 및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62%가 "10년 후 고령자와 젊은이 간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작금의 언론의 보도 내용을 봐도 그렇다. 학교, 직장, 가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서 세대 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말이 안 통하는 꼰대' '젊은 애들은 이래서 문제'라는 비난이 난무한다.

서강대 사회학과 전상진 교수가 펴낸 '세대 게임'은 사회 도처에 널려 있는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세대 게임'이라는 틀로 분석하고 진단한다. '세대 프레임'을 넘어서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세대 프레임 걷어내기에 조점을 맞춘다.

저자가 정의하는 '세대 게임'은 '사람들이 세대에 주목하도록 판을 짜서 어떤 전략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활동이나 움직임'을 말한다. 저자에 따르면 세대 게임은 게임에 참여하는 '세대 당사자'와 게임을 고안하고 설계해 참여 하도록 독려하는 '세대 플레이어'라는 두 층위로 나뉜다. 특히 저자는 게임을 통해 정치적 수익을 얻는 세대 플레이어에 주목한다. 이들은 사회 현안을 세대의 문제로 해석하는 '세대 프레임'을 통해 온갖 사회 문제를 '세대'의 부호로 변환한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저자는 질문한다. "혹시 우리도 세대 프레임의 강렬한 불빛에 현혹되어 엉뚱한 곳만 주시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누가 세대 카드를 쥐고 우리 사회를 흔드는가? 저자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세대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의심하고 주저하기"를 강조한다. 현재의 세대 담론의 남용은 명백히 '세대 프레임'이 작동한 결과라는 것이다.

그 예로 미국의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의 책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를 거론한다. 책은 정치인들과 언론에서 생산한 담론 프레임은 대중들의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꿔왔다고 주장한다. 그 중의 하나가 미식축구 선수이자 배우였던 O.J 심슨 재판이다. 심슨과 그의 변호인들은 인종 차별 프레임으로 몰고 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마찬가지로 세대 게임의 플레이어들의 전략도 다르지 않다. 세대와 상관없는 사안을 내세워 세대들이 서로 다툰 결과로 보게끔 프레임을 짠다.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대입하면 그런 측면이 있다. 극소수 기득권층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청년과 노인, 기성세대 삶이 팍팍한데 이를 청년 대 기성세대라는 전쟁 프레임으로 몰아간다.

저자는 시각에 따라 사안의 원인, 책임, 해결책이 달라지는데 세대 게임 플레이어들은 구조적인 부분은 애써 눈을 감는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자본, 기업 그리고 이에 기생하는 정치권력과 같은 원인을 부각시키지 않는다. 계급이나 젠더, 지역 같은 대립은 외면하고 연령 차이에 불과한 청년 대 기성세대의 대립으로 구도를 단순화한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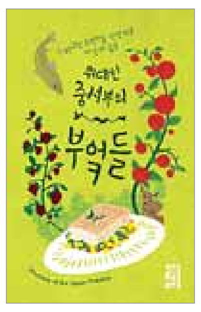
"두 형식의 세대, 곧 나이에 따라 '분류된' 세대와 '우리 의식'을 갖게 된 세대를 시몬드 보부아르의 유명한 말에 빗대어 표현할 수 있다. 여성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처럼, 세대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진다."

현재와 미래 세대의 갈등은 불안과 직결된다. 저출산·고령화는 이 불안의 핵심 키워드다. 사회가 늙어간다는 것은 구성원이 늙어간다는 그 이상을 함의하기에 현재의 우리들에게는 큰 도전이다. 향후 세대 플레이어들의 활약과 세대 프레임으로 인해 갈등은 복잡다단한 방식으로 전개될 것이다. 저자는 "세대 게임의 플레이어들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세대 갈등을 온갖 갈등과 뒤섞어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래야 자신들의 말의 무게가 무거워지고, 의도가 은폐되고, 나름의 목적 실현이 수월해진다." 〈문학과지성사·1만4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약력 소설가인 박성천 기자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J. 라이언 스트라돌 지음·이경아 옮김 '위대한 중서부의 부엌들'



놀라운 미각을 가진 천재 셰프 에바 토르발이라는 소녀가 있다. 그녀는 한 세대에 한 번 나올 법한 뛰어난 감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친부모를 잃고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며 외롭게 성장한 에바는 고향의 음식을 매개로 스스로를 위한 구원과 위안을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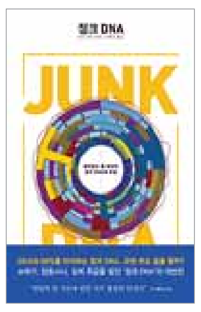
J. 라이언 스트라돌이 펴낸 '위대한 중서부의 부엌들'은 천재 셰프가 되기까지의 어느 소녀에 관한 소설이다. 2016년 '독립 서점들이 뽑은 올해 최고의 문학상'에서 최고의 데뷔 소설 부문상과 '중서부 서점들이 뽑은 최고의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한 작품은 재미와 감동, 유머와 애수 등이 조화를 이룬 이야기다.

부모를 잃고 녹록지 않은 환경에서 자란 에바는 크고 작은 성장통을 겪으면서도 자기 방식대로 세상을 헤쳐 나간다. 요리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에바는 특이한 발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한다. 열한 살 때 벽장 안에 수경 재배 도구와 성장 촉진 램프를 설치해 매운 칠리 고추를 재배하기도 하고, 그 고추를 이용한 계략을 꾸며 자신을 괴롭히던 못된 아이들을 혼내 주기도 한다.

청양 고추의 20배에 달하는 매운 고추들을 기르고 맛보며 내성을 기른 탓에 어른들도 먹기 힘든 매운 음식 먹기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쥐기도 한다. 놀랄만한 미각을 가진 에바는 한번 맛본 음식의 미세한 재료를 알아맞히기도 한다. 소설은 따돌림을 받던 괴짜 소녀가 최고의 셰프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을 경쾌하면서도 따스한 필치로 그려낸다. 〈열린책들·1만48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네사 캐리 지음·이충호 옮김 '정크 DNA'



DNA의 98%를 차지하는 정크 DNA. 과연 정크 DNA는 무슨 일을 할까? 수십 년 동안 인간 DNA 중 98%는 단백질을 암호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쓸모없는 '정크(쓰레기)'로 취급받았다. 그러나 최신 생명과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크 DNA는 유전자 발현 조절, 세포 분열, 암, 유전 질환, 노화 등에서 매우 미묘한 방식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쓰레기, 잡동사니, 잉여 취급을 받던 정크 DNA를 조명한 책이 발간됐다.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부교수로 재직했던 분자세포생물학자 네사 캐리가 펴낸 '정크 DNA'는 생물학계의 핫 이슈인 정크 DNA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지, 또한 정크 DNA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질환이 발생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준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은 단백질을 암호화하지 않는 정크 DNA를 대놓고 무시해왔다. 그렇다면 유전물질의 98%가 쓸모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 저자는 이에 대해 '자동차 조립'의 비유를 든다. 자동차를 조립하는 사람이 2명일지라도 실제 완성되기 위해서는 부품 주문, 자금 조달, 회계 처리, 청소 등 98명의 지원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한다.

정크 DNA가 드러나지 않게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논리다. 실제로 연구가 진척됨에 따라 '단백질 암호화 유전자' 중심의 관점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즉 정크 DNA는 결코 '정크'가 아니라 유전자 발현 조절, DNA 손상 복구, 단백질 생산, 단백질 운반 등 다양하고 중요한 과정에 관여한다고 강조한다. 〈해나무·1만8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안문석 지음 '외교의 거장들:한국 외교의 길을 묻다'

'외교의 거장들 : 한국 외교의 길을 묻다'는 외교의 관점에서 세계 역사를 관찰했을 때 시대별로 빛나는 별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골라 그들의 외교에 얽힌 삶을 조명했다. 그들의 외교에 대한 이념, 활동, 성과, 그러한 성과들이 나올 수 있게 된 배경 등에 대해 자세히 서술했다. 19세기 초에 활약한 오스트리아 총리 클레멘스 폰 메테르니히부터 20세기 말 독일통일을 이룬 한스디트리히 겐셔까지 외교사에서 두드러진 족적을 남긴 10명을 세계 외교의 거장으로 선정해 이들의 구체적인 활동상을 다뤘다. 이들은 세계 외교사의 중대한 변곡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세계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다.

저자인 안문석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동북아 국제질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북한 현대사 산책', '김정은의 고민', '북한이 필요한 미국, 미국이 필요한 한국' 등을 펴냈다.

저자는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앞선 사고로 국제연맹을 창설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을 외교 '거장' 중 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세계 질서의 흐름을 읽고 독일 통일을 현실로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한스 디트리히 겐셔 전 독일 외교장관을 가장 근래에 목격한 거장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 영국의 윈스턴 처칠 등이 고수했던 지나친 보수주의나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의 과도한 국익 중심주의 등 이들이 비판받아야 할 부분도 많지만, 이들의 외교 전략은 우리가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인물과 사상사·1만6000원〉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